

같이 보기

: 경북산업보건센터 직원들이 추천하는 영화

F I L M

경북산업보건센터

직원들이 추천하는 영화



63739-23454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센터
운영지원파트 최효영 파트장

〈포레스트 검프〉 (Forrest Gump, 1994, 미국)

1994년 개봉한 아주 오래된 영화로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포레스트 검프의 삶과 사랑에 관한 인생 이야기이다. 영화를 보다 보면 검프의 모습이 마치 어딘가 부족한 나 자신 같기도 하고 어쩌면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조금은 부족한 검프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느껴지기도 한다. 영화 속 포레스트 검프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무엇보다 진솔한 인생과 사랑에 관한 멋진 명대사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 대사들을 소개한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어떤 걸 가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
“우리 삶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란다.”
“저마다 운명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바람 따라 떠도는 건지 모르겠어. 내 생각엔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
“난 가고 싶은 곳에 가기 위해 뛰었는데 그게 삶의 기회가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똑똑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

아직 한 번도 못 보았다면 꼭 한번 보고 예전에 보았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감동에 자신을 맡겨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00:00:59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콕 생활이 늘면서 의도치 않게 극장과는 거리두기를 하며 집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작년 <오징어게임>이 국내외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국 영화,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봄. 봄나들이 대신 안전하게 집에서 경북산업보건센터 직원들이 추천하는 영화 한 편 보는 건 어떨까?

글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63739-23454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센터
건강진단팀 송단비 차장

<이터널 선샤인> (Eternal Sunshine Of The Spotless Mind, 2004, 미국)

서로 사랑했던 옛 연인인 소심한 남자 조엘과 자유분방한 여자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은 사랑과 이별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에 찾아가서 조엘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지우게 된다. 클레멘타인이 자신의 기억을 지웠다는 사실을 알고 상처받은 조엘은 자신도 클레멘타인의 기억을 모두 지우기로 결심한다. 불행한 기억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기억을 지우는 과정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조엘. 이 기억만은 지우고 싶지 않다고 이제 그만두라고 소리 치지만 결국 모두 지워지고 만다. 서로의 기억을 지운 채로 둘은 몬트 해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다시 서로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런 불완전한 기억 속에서 영원처럼 남는 게 있다면 강하고 순수한 의지로 남겨뒀기 때문이 아닐까. 보면 볼수록 큰 울림을 주는 이 영화를 봄날에 로맨스 영화로 추천한다. 🍷

